

어리석은 리어왕

광화문·부

어수웅

여론독자부장



12월엔 고전을 다시 읽는다. 시간을 이겨낸 작품을 교훈으로 삼자는 세밀 의례다. 올해 고른 작품은 ‘리어왕’. 어리석은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부른 인간을 그린 셰익스피어 대표작이다. ‘리어왕’ 뿐 아니다. ‘맥베스’ ‘오셀로’ ‘햄릿’까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비장한 그리스 비극과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오이디푸스처럼 제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운명의 수레바퀴에 짓밟혀 지옥의 구렁텅이로 내몰린 신화 속 영웅들과 달리,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들은 모두 제 무덤 제가 판 인간 군상이다. 누가 밋을 놓거나 음모를 짰 게 아니다. 자기 성격 때문에 망한 존재들이다.

리어왕의 오판은 바른말 멀리하고 아부에 취하였던 스스로의 어리석음에서 시작됐다. 리어왕의 그 유명한 ‘러브 콘테스트’를 떠올려보라. 딸 셋을 둔 늙은 아버지는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첫째 딸 고너릴, 둘째 딸 리간, 그리고 막내 코딜리아. 일찌감치 아버지 떠나 시집간 언니들과 달리, 늘 옆에서 자신을 돌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셋째 딸. 신하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늙은 왕은 묻는다. 애들이애들아 너희 중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하늘땅 별땅 운운하며 입 발린 소리를 하는 언니들과 달리, 한결같던 효녀 코딜리아는 담담하게 말한다. 어찌 사랑을 비교하거나 계량할 수 있느냐고. 하늘이 준 인연이니 평소처럼 아버지 모실 뿐이라고.

어리석은 왕은 격노하고, 막내 주려고 떼어 놓았던 땅과 재산까지 언니들에게 선물로 안긴다. 코딜리아에게 잔치참금 한 톨 주지 않고 바다 건너 프랑스로 시집보내고, 그 이후의 비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주인공은 운명이 자신을 농락한 게 아니라 모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다 무지와 교만 경계하는 새해를

극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재산 받기 전에 갖은 아양 떨던 두 딸이 이제 아버지를 짐짝 취급하고, 리어왕은 흰 머리 풀어헤친 백수공부가 되어 광야에서 홀로 폭풍우를 맞아한다. 교만이 부른 오판, 무지가 불러온 파국이다.

맥베스 역시 욕망 때문에 타락하다가 선 넘고 파멸에 이르는 어리석은 인간의 대표 격이다. 웅맹스러운 장수였지만, 사실 그 이상의 큰 야심은 없었던 사내.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오던 날, 한밤중 광야에서 맥베스

는 세 마녀를 만난다. 이어지는 예언과 주술, “만세, 앞날의 왕이시여!” 남편보다 더 야심만만했던 레이디 맥베스는 배우자를 부추겼고, 안 하겠다는 남자에게 선을 넘게 만든다. 결국 왕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좌에 오를 맥베스. 하지만 그 이후의 비극 역시 우리는 알고 있다. 이성이 아니라 끝까지 주술과 예언에 의지했던 맥베스 부부는, 결국 리어왕과 같은 최후를 맞는다.

베네치아의 용병 출신인 늙은 오셀로 장군은 어떤가. 출신에 대한 열등감과 젊은 아내 의처증으로 시달렸던 이 못난 사내는 스스로 삶을 버렸고, 정의는 오직 자기만이 구현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졌던 햄릿 역시 선왕의 복수에는 성공하지만, 새드엔딩으로 끝났을 뿐이다.

고전이 위대한 이유는 시간을 이겨냈다는 것. 가장 오래된 작품이 가장 젊은 당대의 교훈이라는 역설을 고전은 웅변한다. 이왕 셰익스피어로 시작했으니, ‘템페스트’에 나오는 한 구절로 마무리하자. “지옥은 텅 비었고, 악마들은 다 여기에 있구나.”

세상은 지금 도처에 아수라장이다. 다시 한번, 당신을 망치는 것도 구원하는 것도 당신 자신이다. 교만으로 무장한 혁명·오판·무지·공명심, 타인이나 신을 원망하지 말 것. 내일은 2025년의 첫날, 새해의 교훈이자 스스로의 경계로 삼는다.



작자 미상, 해와 달, '주님의 포도원서(書)' 중에서, 1450~1470년경. 양피지에 채색, 24×17cm.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보들리언 도서관 소장.

한 해와 달을 보며 다가를 종말을 대비해 쉬지 않고 회개하고 신의 축복을 기도했던 고귀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험난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고통받던 평범한 이들은 이 고통이 어디서 와서 언제 끝날지조차 모르지 않았을까. 포스트 교수·서양미술사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63]

고통의 이유는 무얼까

풀 한 포기 없는 황량한 대지와 그 위를 덮은 하늘이 공허하다. 해와 달이 있으나 어둡고 침울한데, 빛이 있어도 밝힐 세상이 없고, 온기가 있어도 키울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15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제작된 기도서 ‘주님의 포도원서’는 두 권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프랑스 그르노블 도서관에 있는 첫 번째 책에는 예수의 유회와 수난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구원의 과정이 담겼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 보들리언 도서관 소장본인 두 번째 책에는 그리스도의 적들이 세상을 활보하고 마침내 종말이 오고, 종말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도래해 천국과 지옥을 목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중세 말, 유럽에서는 종말론이 유행했다. 인구의 거의 절반을 앓아간 흑

사병이 잦아든 다음, 1453년에 막을 내릴 때까지 장장 116년이라는 세월 동안 백년전쟁이 이어지며 군사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니, 누구라도 말세라 한탄하며 힘겹게 살았을 것이다. 이 책은 종말을 예견하는 여러 징조와 최후의 심판, 그리고 최지은 자들이 지옥에서 받는 고문과 정의로운 이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을 여러 페이지에 걸친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준다. 어두운 태양과 빛이 없는 달은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에서 언급됐지만, 이 책은 성경에서 유래한 종말의 상징뿐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 그레고리우스 등 교부들의 여러 저술에서 따온 다양한 내용을 총망라한 것이다.

이 책의 주인은 아마도 이토록 황량

조류 무대책, 콘크리트 둔덕, ‘설마病’이 만든 참사

무안공항 제2활공 참사 역시 ‘설마’ 하는 생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동체 착륙을 한 사고 여객기는 활주로 끝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에 충돌하면서 폭발했다. 로컬라이저는 조종사의 항공기 착륙을 돕는 설비로 활주로 중심선에 맞추도록 수평 방향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의 경우 비행기가 활주로를 지나쳐도 충격이 없도록 그 경우 부러지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무안공항의 경우 경사진 지형 때문에 로컬라이저가 둔덕 위에 설치돼 있었고 둔덕 자체가 단단한 콘크리트로 보강돼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여수공항이나 포항경주공항 등도 같으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한다. 미국 등 해외는 말할 것도 없고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항안전운영기준에도 로컬라이저는 잘 부러지는 구조로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설마’ 사고가 나겠느냐는 생각에 이런 구조물을 만든 것이다.

체포 영장까지 청구된 尹, 피하기만 할 건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출석 요구서 수령도 거부하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된 적은 있으나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자체가 국가적 불행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체포 영장도 불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이미 공조수사 본부를 꾸려 수사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도 공수처법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최근 내란 관여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소환 조사 거부설 특권이 떨어진다.

무안공항은 갯벌과 4곳의 철새 서식지가 가까운 곳에 건설돼 새 폐출몰이 잦은데도 조류 예방 시설이 전무하고 전담 인력조차 전국 공항 중 하위권이다. 2022년 조류 관련 영향평가에서 가장 높은 ‘위험수준3’을 받았다. 신속히 추가적 위험 경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다. ‘설마’ 한 것이다.

무안공항은 운항 편수 대비 조류 충돌 발생률이 0.09%로 전국 14개 공항 중 가장 높았다. 조류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김해공항(0.034%), 김포공항(0.018%), 제주공항(0.013%)보다 월등하게 높다. 그런데도 무안공항의 조류 퇴치 전담 인력은 총 4명으로 전국 14개 지방 공항 가운데 하위권이다. 김포공항(23명), 제주공항(20명), 김해공항(16명)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사고 당시 야간조 인력 1명과 주간조 인력 1명이 교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류 사고를 예방할 설비도 전무했다. ‘설마’는 자주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번 터지면 비극적 참사로 이어진다.

더구나 얼마 전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일선 군 지휘관들에게 했다는 충격적인 지시 내용까지 다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쏘더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며 국회의원 체포 지시까지 했다는 것이다. 계엄을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사실이면 명백한 위헌·위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지만 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관들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까지 이미 다 구속했다. 그렇다면 이 사태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먼저 밝혀야 한다. 그런데 해명은커녕 법적 절차까지 피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동안 경호처는 대통령실 압수 수색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체포 영장은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된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다. 그 공언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27일 만에 사과한 국힘, 국정 수습안으로 진정성 보여야

3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관영세 의원이 선임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여섯 번째 비대위위원장이다. 이 당이 정상이 아니라 사실은 이 숫자만으로도 알 수 있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차질하게 반성하고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12·3 계엄 사태 27일 만에야 나온 공식 대국민 사과였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무책임은 도를 넘었다. 의원 대다수는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수습 불가능한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그런데도 침묵하며 책임을 회피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치인 자격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반대했다. 느닷없는 계엄이 정치와 경제, 나라의 위상을 졸지에 추락시켰는데 그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고 당론으로 결의했다는 것이다. 의원 개인이 반대할 수는 있다. 어떻게 당 전체가 반대하기로 하는가. 국민 다

수의 선택을 받았다는 생각을 포기한 것과 같다. 탄핵안이 통과되자 ‘부역자’를 색출하겠다고 했다. 민주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다수 국민의 시선을 외면하며 소수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산업화를 이룬 역사의 정당이 작은 안일을 추구하며 미래를 스스로 없애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못하게 한덕수 총리를 압박했다. 대통령 탄핵 재판의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그 공정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재판관 9인 체제 회복은 필수적 문제다. 현재를 마비시킨 장본인인 민주당이 “무조건 빨리 임명하라”고 재촉하는 것도 정략이고, 국민의힘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도 국민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줄곧 반대해 왔다. 김 여사 문제는 윤석열 정부를 망친 근본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적 의혹은 분노로 바뀌어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는 뜻도 있었을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면 김건희 특검의 위헌성을 없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나름의 대안을 내기 바란다.

한덕수 대행마저 탄핵

정치는 끝났다, 이젠 전쟁이다... 5개의 전선 형성됐다

내전 넘어 국제전 ... 《한미일》 vs 《북중러》

① 법정투쟁 ② 제도·정치권 투쟁 ③ 자유국민 저항 투쟁 ④ 언론 투쟁 ⑤ 국제정치 투쟁

광화문에 모여 끝까지 저항하자

▲ 12월 29일 광화문에 모인 자유우파 시민들 모습. © 유튜브=자유마음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

한덕수 권한 대행마저 탄핵당했다. 무정부 상태다. 무안 공항 참사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외쳤다. “왜 계엄 당일만 보고 그 전은 안 보는가?”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

이재명도 속내를 드러냈다. “윤석열 우위(擁衛) 세력을 뿌리 뽑겠다.” 뿌리 뽑아? 일당독재 혁명?

좌익 혁명꾼들과 이재명 일당, 초조?

《자유대한민국 vs. 좌익+부역자》의 대결은 이것으로 《정치를 넘어 전쟁으로》 갔다.

《좌익 혁명꾼들과 이재명 일당》은 왜 《막판 결전을 재촉》했나?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발악 때문이다. 《반(反) 국가 세력+중국 공산당도 꿈틀거렸을 법》하다. 《중국인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국내 기회주의 정파와 언론》들이 좌익 혁명 쪽으로 가 붙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대로다.

5개의 전선 펼쳐졌다

이 사생결단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 제1 전선: 《법정투쟁》

이 전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비에 섰다. 그러나 이재명이 그 결말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감방 가면, 그와 대한민국은 《구사일생할 수》 있다.

※ 제2 전선: 《제도 정치권 투쟁》

이 전선에서 자유인들은 국민의힘을 더는 믿을 수 없다. 그들은 투항했다. 무력화 됐다. 배신했다. 꺼져라! 《자유대한민국 수호 국민연합》으로 가자!

※ 제3 전선: 《자유 국민의 레지스탕스(저항) 투쟁》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국좌+부역자들의 가짜 뉴스 선동》이 이젠 잘 먹히지 않는다. 광화문 자유 시민들의 세(勢)가 좌익 홍위병들보다 월등히 세다.

※ 제4 전선: 《언론 투쟁》

《탄핵 찬성 언론에 맞서 《탄핵 반대 자유 언론이 치열하게》 싸운다. 독자들은 답하라. 《어느 편》에 설 건가?

※ 제5 전선: 《국제정치 투쟁》

한국인들은 택하라. 《한-미-일+인도 태평양 자유 동맹 vs. 유라시아 전체주의 동맹》 결판에서 어느 쪽에 설 건가?

자유 아니면 죽음일! 대한민국 만세! 서방 동맹 만세! 우리 승리하리라!

이류 근 일

뉴데일리 논설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시지문 입력: 미국통 한덕수가 필요하다

현재, 한덕수 대행 탄핵 효력정지 가져분 심리 최우선으로 하라

이양승 칼럼: 중국 속국화는 시간 문제

무정부 상태 만들고 미소짓는 이재명... 주변 인물 죽어나간 냉혈한 얼굴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12월 28일 게재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12월 28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24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